

전기공사업계, 여의도 우체국 건립공사기술제안입찰 발주에 “명백한 법 위반” 강력 반발

“정보통신공사만 분리발주, 업역에 대한 심각한 차별”
 협회, 입찰금지처분 신청·고발조치 등 초강수 대응

연초부터 대형 공사로 관심이 집중된 여의도 우체국 건립공사가 결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돼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반발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전기공사를 제외한 정보통신공사만 분리발주하는 ‘뜯지도 보지도 못한 형태’로 발주돼 전문 시공업계 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발주한 여의도 우체국 건립공사는 1975년 건립된 기존 건물을 지하 4층, 지상 33층, 연면적 약 6만8487㎡ 규모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추정금액 1338억원(건축 1104억원, 전기 142억원, 소방 91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다. 이로 인해 발주전부터 유수의 건설사 간 물밑 수주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난해 10월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역역

업체로 선정돼 마무리했고 지난 7월 입찰이 공고됐다. PQ심사 신청서 제출은 오는 25일까지다. 약 6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공사는 내년 초 발주 예정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여의도 우체국 건립공사의 기술제안입찰 발주를 무효화하고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술제안입찰은 법으로 명시된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제안입찰제도 도입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성토하고 있다.

또 협회는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법에 전문 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만 분리발주한 것은 업역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는 국

가인프라 조성의 가장 중요한 축인 전기공사업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우선적으로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과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법령위반을 이유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대규모 쉼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측은 재건축된 건물 중 일부만을 우체국 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무실로 임대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공사는 독립공정이라서 분리발주했고,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와의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발주했다며 특히 지난 7월 발표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위반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결과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을 위해 도입된 기술제안입찰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우체국 공간은 일부뿐이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활용할 예정인데 이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정보통신공사만 분리발주했다는 것은 국민생활의 필수요소인 전기산업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다. 기술제안입찰제도가 도입된 후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정보통신공사만 분리발주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을 정도로 매우 불합리하고 이례적인 발주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위반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결과는 오히려 공공기관 등 발주처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했다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전=진시현 기자 jinsh@

“건설은 복지고, 일자리다”

200만 건설인 한 목소리, SOC 인프라 투자 늘려야
 대한건설협회 등 5개 단체, 12일 공동 기자회견 가져

“인프라 투자야말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미래를 위한 진정한 복지입니다. 투자를 늘리면 추가적인 사회적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설분야 5개 단체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SOC 예산을 올해 대비 20% 삭감한 17조 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절실하게 반영된 결과다.

더욱이 기재부가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오는 2021년까지 연평균 7.5% 감축할 예정이어서 건설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날 5개 단체는 2018년 SOC 예산이 올해 대비 4조4000억원 가량 대폭 축소된 데 대해 전국 200만 건설인을 대표해 “건설이 곧 복지고 일자리”라며 “노후 인프라 개선으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때”라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 인프라 투자 축소는 ▲국민복지 저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저해 ▲시설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 위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도로 총연장은 OECD(35개국) 국가 중 최하위이며, 자동차 1대당 도로 총연장은 33위, 국토계수당 도로 총연장 또한 3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 인프라 수준은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근시간은 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62분 수준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SOC 투자 1조원 감소시 일자리는 1만4000여개가 줄어들고, 0.06%p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건설업 종사자가 200만명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SOC 투자 축소는 지역 서민경제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이 침체된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고, SOC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노후와 축적된 기술은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통할 것”이라며 “200만 건설인들은 국민과 정부, 국회에 내년도 SOC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으로 유지해 주길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석희 기자 xixi@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파이팅!

한전은 지난 12일 광주전남혁신도시 소재 분사에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한전KDN 등 관계기관 인사들과 ICT관련 6개 협·단체, 빛가람에너지밸리 투자기업 38곳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및 4차 산업혁명 유관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빛가람에너지밸리 투자기업은 238곳으로 늘어났다. 9561억원 상당의 투자와 6809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관련기사 5면 조정훈 기자

LED조명 입찰기준 두고 ‘잡음’

성능외면, 지역업체와 유착 등 각종 문제점 불거져

추경경정예산안 집행을 앞두고 LED 조명 입찰기준과 관련,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수한 제품을 설치하기보다 기준만 통과하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주의와

지역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도마위에 오르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지난 7월 정부는 추경안을 확정지으면서 LED조명 교체 사업을 위한 예산 2002억5600만원을 편성했다. 예산을

배정받은 교육부는 전국의 국립대학교 교육청들에게 구매지침을 내렸고, 각 현장에서는 추석 전 사업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입찰기준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업체와의 유착 관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는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사업 담당자들이 LED조명의 품질을 좌우하는 총광속과 광효율 등 주요 성능을 외면한 채 소비전력을 핵심 기

준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50W급이나 40W급 대신 효율이 높은 30W급 제품을 사용하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업체와의 유착 관계에 따른 사업 진행도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에 관한

내용을 지침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지역 내 업체 제품만 구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이 일시적이면서도 급하게 진행되면서 잡음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추경안의 목적을 살리면서 업계 전체의 호재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입찰기준과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교 기자 kimsk@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M&A전문기관
양도양수·신규면허 비용지원
 건설114 T.02-522-1114 www.c114.com

Emergency Light & System

유니센서
 -30-
 유니센서 창립 30주년
 1987-2017

국내최초, LED센서등 + 비상조명등 ‘유니센서’ 개발

평상시에 LED센서등으로 사용되는 유니센서- 재난 및 화재시에는 가족을 위협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비상조명등으로 전환되어 가정을 위협에서 안전으로 지켜줍니다

비상조명 전문기업 유니온라이트가 평상시에는 센서등으로 사용하다 화재나 정전으로 전원공급이 차단되면 즉각 비상조명등으로 전환하는 LED센서등 ‘유니센서’를 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2016년 한국전기문화대상 대통령 표창수상
 2016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총 5회수상)
 2016년 특허경영대상 은상 수상
 2017년 제품안전대상 수상

INNOBIZ, Mils, KFI, ISO, CE, KFI (형식승인번호 비16-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4다길 47(창동)
 Tel. 1644-0408 Fax. 02-9060-600

USEN-200 (비상조명 겸용 센서등)